

KIA, 김선빈 이탈했지만... 나성범·김도영 돌아온다

주장 김선빈, 오른손 엄지 골절로 전력 이탈...전반기 마감
나성범·김도영, 부상 털고 퓨처스리그서 실전 감각 조율

KIA 타이거즈가 최근 악재를 만났다. 주장을 맡고 있는 김선빈의 부상 이탈이다. 김선빈은 지난 17일 광주 NC 다이노스전에서 4회 제이슨 마틴의 직선 타구를 잡으려다 공에 오른손 엄지를 맞았다. 지난 19일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김선빈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4주 동안 안정과 재활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은 김선빈은 2주 뒤 재검을 통해 상태를 체크할 예정이다. 올스타 휴식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김선빈은 사실상 전반기를 마감했다. 주전 2루수인 김선빈의 빈 자리는 크게 느껴진다. 공격 쪽에서도 올 시즌 54경기에서 타율 0.302 18타점 18득점을 기록한 김선빈의 공백은 상당하다. 악재도 있지만, 간절히 기다리던 지원군도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간판타자 나성범과 내야수 유망주 김도영이다. 나성범과 김도영은 시즌 초반부터 자리를 비웠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도중 왼쪽 종아리 통증을 느낀 나성범은 시범경기를 건너뛰었고, 개막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

했다. 원래 큰 부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됐지만 4월 초 정밀검사서 종아리 근육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나 공백이 길어졌다. 프로 2년차를 맞은 김도영은 개막 이후 두 번째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 4월 2일 인천 SSG 랜더스전에서 3루 도중 3루를 밟다 왼쪽 발목을 접질렸고, 왼쪽 종족골(새끼발가락)이 골절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나성범과 김도영은 이후 재활에만 매달렸다. 4월 중순에는 일본으로 떠나 치료를 받기도 했다. 두 달 넘게 재활에 몰두한 나성범과 김도영은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고, 지난 20일부터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나서며 실전감각 조율에 나섰다. 김도영은 지난 20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1볼넷 2득점을 올리며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과시했다. 1회 2루타, 7회 3루타 등 장타를 2개나 때려냈다. 나성범도 안타 1개를 치면서 타격감을 조율했다. 나성범과 김도영은 퓨처스리그 경기를 치르



면서 몸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베테랑인 나성범은 몸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이달 말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도영은 다음달 초 1군에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시즌을 앞두고 6년, 150억원에 KIA와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은 나성범은 전 경기(14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0 21홈런 97타점으로 중심타선을 이끌었다. 대형 신인으로 기대를 모은 김도영은 데뷔 첫 해 쏟아지는 기대 속에 부침을 겪으면서 타

율 0.239에 머물렀지만 프로 2년차인 올해 타선의 주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둘 다 부상으로 빠지면서 KIA는 어렵게 시즌을 풀어야 했다. 김선빈의 부상 이탈로 KIA는 바라왔던 '완전체 타선'을 꾸리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나성범과 김도영의 복귀는 치열하게 중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KIA 타선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슬비기자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 한국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한일전 불발됐지만 사실상 한국 완패

한국, 6월 A매치 1무1패...일본 2전 전승
한국과 일본이 6월 A매치 2연전에서 다소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때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일전이 불발됐지만 사실상 한국이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지난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엘살바도르전에서 후반 4분 황의조가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42분 알렉스 톨란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1-1로 비겼다.

앞서 한국은 지난 16일에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페루전에서는 전반 11분 브라이언 레이나에게 내준 선제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0-1로 졌다. 반면 일본은 2연승을 거뒀다. 일본은 16일 엘살바도르를 6-0, 20일 페루를 4-1로 크게 이겼다. 카타르월드컵을 치른 모리야스 감독 체제를 유지한 일본은 스타일을 지켰다. 일본은 단단한 수비 조직을 갖춘 채 이도 준야와 미토모 카오루 등 발 빠른 윙포워드를 활용해 역습하는 축구를 이변 6월 A매치 기간에도 구사했다. 반면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면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추구하던 빌드업 기반 축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장원을 거쳐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전방 공격수를 향해 과감하게 공을 투입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이 같은 전술로 이번 2연전에서 득점 기회를 다수 창출했지만 득점은 1골에 그쳤다. 소속팀에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지 못한 조규성과 오현규 등 스트라이커들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며 승리를 날렸다. 오현규는 페루전에서, 조규성은 엘살바도르전에서 많은 기회 속에도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이 이들의 경기감각 저하를 걱정했을 정도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6월 A매치에서 정반대 성적표를 받아들이자 일각에서는 간접적인 비교이기도 한 한국이 일본에 열세라는 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일 양국이 실력을 겨룰 기회가 벌어지는 듯했다. 지난 4월에 한일전 개최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매체 스포츠닛폰은 "일본 대표팀의 6월 A매치 상대로 한국이 재부상했다"며 "3월 A매치 후에도 한국이 있었다. 한국이 올해 일본과 평가전을 희망한다. 6월 경기를 협의 중"이라고 보도해 한일전 성사 기대감이 증폭됐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최근 A매치를 준비하면서 일본축구협회와 협력을 해왔다. 실무자들이 연락하면서 '상대'가 없으면 우리끼리 하자'라는 가볍게 나누는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일본과의 평가전을 놓고 공식적으로 협의한 게 없다. 일본과 평가전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밝혀 성사가 불발된 바 있다. 결국 이번 6월 평가전에서 한국과 일본의 분위기가 엇갈리면서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아컵을 앞두고 우레가 제기된다. 한국은 E조, 일본은 D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순위에 따라 16강부터 한국과 일본이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펜싱 男사브르·女에페, 아시아선수권 단체전 금

결승서 각각 이란, 홍콩 제치고 우승

한국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 대표팀이 아시아를 정복했다. 오상욱(대전광역시청), 구본길, 김정환(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가 나선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0일 중국 우시에서 열린 2023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32강에서 요르단을 45-14로 가볍게 꺾은 한국은 8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45-30으로 물리치고, 4강에서 중국을 45-28로 넘겼다. 기세를 탄 한국은 결승에서 이란을 45-28로 제압하며 정상을 차지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거머쥐면서 대회 3연패를 완성했다. 여자 에페 대표팀도 3회 대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송세라(부산광역시청), 최인정(계룡시청), 강영미(광주광역시 서구청), 이혜인(강원도청)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8강에서 인도네시아를 45-25로 가볍히 무찌른 뒤 4강에서 일본을 45-36으로 꺾었다. 결승에서 홍콩을 39-31로 따돌리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은 2009년 카타르 도하 대회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안선수권 12회 연속 종합 우승을 일궈냈다. 이번 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한 한국은 13연패에 도전 중이다.



김은중호가 본 클린스만호 롤모델은... "이강인과 뛰는 게 꿈"

U20월드컵 4강 주역, 대전서 A매치 직판 K리그 미디어데이에 롤모델 선수들 제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20세 이하 대표팀 주축들이 지난 20일 대전에서 열린 A매치를 관전했다. 이들은 수훈 선수로 황인범(울림피아코스)과 김승규(알사바브), 홍현석(헨트), 황의조(FC서울) 등을 꼽는가 하면 이강인(마요르카), 주민규(울산현대) 등을 꼽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20세 이하 대표팀은 전날 한국-엘살바도르전이 열린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경기를 관전했다. 경기 시작 전 이들을 관중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관중은 이들을 향해 축하 박수를 보냈다.

경기 하루 뒤 주장 이승원(강원FC)을 비롯해 이영준(김천상무), 배준호(대전하나시티즌), 김준호(김천상무) 등은 서울에서 열린 U-20 월드컵 활약 K리그 미디어데이를 통해 이번 경기에서 어떤 선수의 플레이가 인상 깊었는지 언급했다.

배준호는 황인범을 지목했다. 그는 "제가 원래 롤모델로 했던 황인범 선수가 뛰었다"며 "황인범 선수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서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호는 김승규를 택했다. 그는 "김승규 선수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A대표팀에 드는 게 제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동기 부여가 됐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승원은 홍현석을 주목했다. 그는 "어제 홍현석 선수 경기를 보면서 요즘 A대표팀이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는 것이 보였다"며 "그런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U-20 월드컵 활약 K리그 미디어데이'에서 선수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호(김천 상무), 배준호(대전 하나시티즌), 이승원(강원FC), 이영준(김천 상무).

무대에서 자신 있게 하는 현석이형의 플레이를 보면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영준은 황의조를 눈여겨봤다. 그는 "황의조 선수나 조규성 선수, 오현규 선수 세 분 모두 정말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황의조 선수 플레이를 보고 되게 많은 것을 배웠다"며 "저도 색깔이 있는 선수가 되고 싶고, 제 장점을 살려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이들은 K리그 복귀 후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승원은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고 팀에서 바로 알아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훈련을 해나가면서 저의 장점들을 좀 더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가 경기 운영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딪쳐보고 경험해보면서 경기 운영적 부분 배워 좀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는 "저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경기장에서의 세밀함 같은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준호는 "저는 경기장에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제 장점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을 더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지 더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준은 "저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들과 싸우는 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스피드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서 김천상무에서 배우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많은 성장을 하고 복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닦고 싶은 선수들도 꼽았다. 이영준은 주민규(울산현대)를 꼽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주민규 선수와 한 번 같이 같은 팀에 있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주민규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나 공격수로서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골을 정말 잘 넣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꼭 주민규 선수와 같이 훈련하면서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배준호는 케빈 더 브라위너(맨체스터시티)를 꼽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적인 목표는 EPL이라는 리그에서 뛰어보고 싶다"며 "한국에서는 황인범 선수를 롤모델로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맨시에서 있는 더 브라위너 선수를 롤모델로 하고 있어서 기회만 된다면 같이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기대했다.

김준호는 테이 슈테켄(FC바르셀로나)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수로는 바르셀로나의 테이 슈테켄 골키퍼를 좋아한다"며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한다면 나중에 레알 마드리드에 가서 엘클라시코를 하면서 테이 슈테켄과 경기를 한 번 뛰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원은 이강인과 뛰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굉장히 핫한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뛰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다"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보고 배웠던 선수이기도 하고 정말 큰 무대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배울 게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승원은 "저는 경기장에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제 장점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